

월간규문 9월호



Hot Issue 질차탁마 푸코, 최종 에세이 발표 현장!!
소설 읽는 수경 로제 그르니에, 『짧은 이야기 긴 사연』
元一의 “樂樂” Keith Jarrett - Köln Concert(1975)

파종하는 태람 괴로움을 대하는 자세
‘육’자매의 인물열전 사사로운 정 때문에 비극이 된 생, 조趙나라 무령왕
이달의 선물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절차탁마 시즌1 '푸코전작읽기'가 개강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절차탁마는, 푸코-니체-들뢰즈의 저작을 각 1년씩 총 3년간 읽으며 문제 구성 능력과 사유하는 힘을 키우고 글쓰기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대장정의 첫 주자인 푸코와 만나는 날, 당연히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2개월이 더 소요된 기간 동안 우리는, 푸코의 문제의식과 문체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실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초기 저작에서는 문학인지 철학인지 알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체에 충격을 받았고, 『성의 역사 1: 앞의 의지』(1976)이후 1984년 『성의 역사』2, 3권이 출간되기까지의 8년의 공백기 동안 콜레주드프랑스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에서는 그의 논의를 끌어가는 치밀함에 놀랐죠. 너무 밀도가 높아서 단 한 문장도 설령 읽을 수가 없어 헉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휴~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잘 몰라서 짜증내고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어쩌다 뭔가 하나를 이해하게 되어 기뻐할 때도 옆에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푸코와 함께 해준 동학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1년 동안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

'푸코전작읽기'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에세이 발표는 9월 17일 수요일 12시에 있었습니다. 윤차장, 수경, 제리, 태람, 추, 병철, 미영샘, 조금 늦게 오신 현옥샘까지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채운샘이 매의 눈으로 우리들의 글을 체크해 주셨구요. 글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에세이를 씀으로써 한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모두 훌륭합니다!!

에세이 발표 전 주, 인트로와 개요를 들고 만난 자리에서 채운샘의 주문은 단 한가지였더랬죠. 몇 장을 써도 좋으니 꼭 마무리를 해오라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 그날의 풍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첫 주자는 어찌됐건 결론까지 써 온 윤차장과 수경. 저는 “자기 배려, 가장 혁명적 저항”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푸코가 고대 그리스·로마로 날아가 보여준 고대인들의 자기배려가 어떻게 우리 삶의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저항의 형식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죠. 본인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 쓴 것이 아마도 최선이었을 거라는 평과 함께 아쉬운 점은 뒷부분에서 푸코의 고고학적, 계보학적 방법이라든가, 주제화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문제 등등 막 던져진 것들 역시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채운샘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그 만큼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몸을 던져 마구 해매 볼 것. 이것이 제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수경은 세월호 사건으로 도드라지게 떠오른 일베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주제에 용기 있게 도전했다는 점에서 박수! 하지만 그녀의 글이 “난파당한 배가 있는 그 장소 -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 그리고 ‘정치적임’에 관하여”라는 제목처럼 난파당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총평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올 만큼 의미가 너무 중의적이며 개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왜 굳이 일베를 가지고 세월호 사건을 보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도 있었죠. 그것이 잘 분석되지 못했기에 결론이 너무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구요. 잘 가다가 어딘가로 흘러버리지 말고 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 것. 수경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 문제의 병철! 내용에 관해서는 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ππ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쾌락을 소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우리들”이란 제목의 에세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고 비문과 오타로 읽기조차 힘들었죠. 같이 공부한 동학으로써 애정을 가지고 모두 한 마디씩 해줬을 뿐. 무얼 하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말밖에 해 줄 말이 없네요.

언제나 밝은 얼굴의 미영샘~ “어떻게 미학적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글을 써 오셨는데요. 에세이가 강제가 아니었음에도 쓰셨다는 점, 그것도 열심히 쓰셨다는 점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그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꼼꼼하게 풀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지만 샘, 걱정마세요. 이미 달라지고 계십니다요~ ^^

현옥샘의 글은 늘 고민이 묻어나서 좋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알 수 있기도 하구요. 특히 이번 에세이는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느끼기에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나는 스스로 기쁨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이번 에세이는 완성된 글이 아니어서 충분히 더 하실 이야기가 남아 있기에 좀 더 읽고 싶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완성 못한 뒷부분에서 푸코의 개념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가족과의 관계를 발명할 것인가 하는 결말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채운샘의 평이 있었습니다. 12월 규문 향연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핫이슈 Hot Issue

절차탁마 푸코 4학기 최종 에세이 발표 현장!!

그리고 제리! 제리는 이번에 푸코 마지막 에세이를 쓰면서 -24일 에세이 재발표를 위해 글을 다시 쓰면서- 뭔가 자신이 아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는 멘붕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항의 새로운 형식, 자기배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고민이 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이 아닐 수 있는가?”로 다시 쓴 글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았구요. 소제목만 봐서는 어떻게 전개될 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푸코의 중요한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어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끌고 가는 힘은 있으니 좀 더 치밀하게 글을 쓰는 노력을 할 것! 이것이 제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날의 문제의 커플, 태람과 추. 각자의 큰 벽에 부딪힌 그들은 거의 써오질 못했습니다. 진단하기에 둘의 문제는 달랐어요. 꽤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태람은 지금 현재, 누군가의 멋진 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녀에게 자신을 믿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듯 합니다만, 말이 쉽지요. 태람은 지금 몹시 힘들 겁니다. 힘내라, 태람!!! 추는 글만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선뜻 드러내지 못하는 건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해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늘 걸려 넘어지는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게 어려운 걸. 조금만 더 용기를 내길! 자신을 깨고 나가길!

조금 늦게 시작하여 아주 늦지는 않은 8시 반쯤 에세이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24일 태람과 제리의 에세이 재발표가 있었음)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은 채, 몹시 흥분한 마음으로 뒤풀이로 향했죠. 그날의 간식이 밀가루의 향연이었기에 모두 밥과 얼큰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찌개집을 갔습니다. 서로 애썼다고, 또 1년 열심히 니체와 함께 헤매보자고 격려의 말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뒤풀이는 미영샘이 내셨어요. 샘~ 맛있었어요. ^^

이제 절차탁마 두 번째 시즌, '니체읽기'가 10월 1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언컨대, 푸코 보다 10배는 어렵다는 니체. 그는 또 우리를 어떤 멘붕 상태에 빠뜨릴까요? 자못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뭐, 어때요, 그리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니체와 함께 해요!! ^^

(절차탁마 시즌2, '니체읽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년 총 4학기 진행되며 학기별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o^)/ 윤차장

소설 읽는 수경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 로제 그르니에, 『짧은 이야기 긴 사연』



지난달에 이어 또 한 권의 소설집을 소개하려 한다. 이번에는 현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인 로제 그르니에의 『짧은 이야기 긴 사연』. 나이 아흔을 넘긴 작가가 지난 해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작이다. 제목이 이미 말해주듯 각각의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그것들이 남기는 여운은 만만치가 않다. 표제작 「짧은 이야기 긴 사연」을 보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고,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하는 두 사람이. 때로는 이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남편과 아내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 채로 시간이 흘렀다. 계획했던 이혼은 끝내 하지 못했고, 덜컥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마침내 아내와 이혼하지만 남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회사 동료였던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남자와 여자는 늙어가고, 남자는 그녀와 자신 둘 중 누가 먼저 죽게 될지 궁금해 한다.

이게 이야기의 전부다. 현란하고 강렬한 묘사를 즐기는 작가가 아니라서 실제 작품을 읽어도 내가 이곳에 요약해놓은 것과 그 톤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르니에의 고요한 목소리는 이야기의 끝으로 다다르면서 점차 침묵으로 찾아들고, 독자는 으레 그 순간 한숨을 내쉬고 만다. 그 한숨의 정체는 무엇일까.

때때로 웃고 가슴 설레기 때문에 잊거나 혹은 모르는 체하며 살지만, 어쩔 수 없다. 삶은 점차 삭아 무너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시간은 내가 소중히 여겼던 존재들이 발하던 빛을 앗아가고 그 대신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미칠 듯한 열정으로 내달리던 사랑은 끝내 붕괴되어 사라지고, 이를 깨닫고 문득 내려다보았더니 젊음으로 빛났던 육체는 어느덧 노목(老木)이 되어 있다. 내 신념이 옳다고 자신했을 때, 최고의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을 때,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을 때는 몰랐다. 내 삶이 얼음판 위에서 벌이는 자치기 놀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는 순간에도 그걸 까맣게 모르고 이게 사랑이다 이 선택은 내 운명이다 여기며 행복해했다는 것을.

발 아래로 문득 시선을 돌리게 되는 순간은, 아무리 빨라도 언제나 너무 느린 법이다. 이 깨달음을 두고 ‘성숙’이라 이름붙일 수도 있지만 나와 당신 같은 수많은 범인(凡人)들에게 이는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늙음’일 뿐이다. 실제로 『어젯밤』의 작가 셸터와 로제 그르니에 사이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짧은 이야기 긴 사연』의 아주 많은 인물들은 글자 그대로 삶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곳에 도착하고서야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오랜 동안 자기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았던 어떤 것 - 그때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라든지 그때 시야에 포착된 특정한 물건이 어떤 의미였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몰랐던 그들은 무구했고, 그러나 결코 무고하지는 않다. 아, 너무 늦었고, 너무 늦었다!

그는 늙어갈수록 더욱더, 그녀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될지 알고 싶었다.

또 다른 의문이 그의 머리를 스치는 때도 가끔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엇갈린 일이 많았기에 더욱 뜨거운 귀중한 사랑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턱도 없는 환상을 보았던 것일까?

그는 이제 우리가 애정의 측면에서 맛보는 인생의 실패는 사람의 일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따금 그는 컴퓨터를 켜고 ‘전화번호부’ 사이트를 열어보곤 했다. 교외지역에 위치한 그녀의 주소, 아니 적어도 그녀의 남편의 주소는 여전히 모니터에 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컴퓨터가, 입력한 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아흔을 넘긴 노작가가 되돌아본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다. 붕괴되어 가는 삶, 이따금씩 찾아오는 빙고 게임의 당첨금이 장식처럼 곁들여진. 거리의 샌드위치맨을 비롯해 엔지니어, 악기연주자, 작가지망생 등등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하고도 별 것 아닌 삶 안에서 독자가 마주하게 될 것은 사랑, 청춘, 늙음에 대한 이야기다. 단 신화 없는 사랑, 모험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늙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르니에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영웅도 아니고 성인(聖人)이나 현자도 아니다. 그들은 바로 조금 전 내 곁을 지나갔을지 모를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 역시 셀 수 없는 착각과 흥분 속에서 보낸, 나와 같은 사람들.

담담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르니에의 의도가 독자를 향해 체념 섞인 위로를 건네는 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반신반의한 상태지만, 나는 그가 전하는 다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수긍한다. 우리는 언제나 모른다. 답이 따로 있는데 맞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 뒤에는 그보다 훨씬 기나긴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이유로 하여. 말해진 이야기, 표면에 드러난 사건은 항상 짧고 불친절하다. 반면 그 이야기가 품고 있는 곡절들은 엄청나게 길고 다양하다. 심지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늘어만 간다. 문제는 우리네 눈은 그것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지 못하다는 사실. 하여 언제나 모든 선택은 패착이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이 낯설어지고 만다. 문득 이를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다니, 아흔여섯 살의 로제 그르니에는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지독하고 가차 없는 작가다. 그의 작품을 단 한 편이라도 읽고 나면 이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신하지 말자, 남을 안다고도, 또 나를 안다고도. 우리에게는 단 한 줄의 사연조차 읽어낼 눈이 없다. / 수경

元一의 樂樂

樂樂은 음악을 즐기다(락악), 즐거움을 음악하다(악락), 즐겁고 즐겁다(락락), 음악을 흔들어라(Rock樂) 모두를 의미하는, 원일샘의 음반소개코너입니다~

키스 자렛은 전 세계 재즈피아노 솔로 아티스트 중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율로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Keith Jarrett - Köln Concert'는 1975년 1월 24일 쾰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 연주를 녹음한 것으로, ECM 레이블을 통해 독점 발매되는 그의 여러 음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앨범이다.

나는 첫 곡 'Part 1'을 듣는 순간 바로 압도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오디오 환경에서 들어봐야 생생한 즉흥 라이브 연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참다운 즉흥 연주를 듣자 내 몸은 전율했다. 깊은 감성의 총위들이 나에게 차례로 육박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음반을 다 듣고 난 후 나온 첫 마디는 "아~~~!!!" 즉흥 연주를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경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떤 연주를 할 것인지 매번 아무것도 정해 놓지 않는다는 키스 자렛의 놀라운 연주 철학!

"어떤 소재를 다룰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음악이란, 연주자가 그 소재에 무엇을 불어넣는가에 대한 것이다."

모티브와 주제를 전개·발전시키는 것이 작곡의 기본이고 곡의 구성을 이루는 뼈대라고 한다면, 즉흥 연주는 이를 교란하고 해체하며 탈구성과 재구성을 변덕스럽게 오가는 것이다. 즉흥 연주는 배설하듯 아무렇게나 마구 연주하는 게 아니다.

지속과 반복, 재현과 변덕스러운 속도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즉흥 연주자가 되려면 어마무지한 연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즉흥 연주자는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성과 감각을 조율하며 소리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하여 참다운 즉흥 연주는 작곡과 연주의 궁극인지도 모른다.

이 음반과 관련된 에피소드. 키스 자렛은 공연 직전 감기 몸살에 걸려 공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연 직전까지 원하던 피아노가 도착하지 않아 원치 않는 피아노로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키스 자렛을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했던 피아노 트리오, 게리 피콕(베이스·75), 잭 디조넷(드럼·68)이다. 이들은 1983년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완전한 즉흥 연주로 이루어진 이들의 수많은 연주 실황과 스튜디오 녹음 연주도 들어보길 권한다. 새로운 재즈의 역사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Keith Jarrett

Köln Concert(1975)





파종하는 태람

괴로움을 대하는 자세

'중생이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에서는 곧 그 죄인을 잡아, 뜨거운 쇠집게로 그 입을 벌리고 뜨거운 쇠구슬을 그 입에 넣으며, 다음에는 끓는 구리솥물을 입에 쏟으며 다시금 쇠도끼로 그 몸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형틀과 사슬로 그의 몸을 묶는다. 그 다음에는 불수레[火車]와 숯불이 가득한 화로[鑪炭], 그 다음에는 끓는 쇠솥[鐵鑊], 그 다음에는 뜨거운 잿물이 흐르는 강[灰河], 그 다음에는 칼산[刀山]과 칼나무[劍樹] 등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천오사경(天五使經)에서 설한 바와 같다.'(잡아함경, <아육왕경>)

이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다. 끔찍한 현실이다. '지옥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옥을 현실화 시켜서 죄를 다스리겠다는 임금과 이를 실행하는 백정. 그리고 어쩌다 백정의 집으로 들어간 '위해'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백정의 집.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채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 위해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상인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보물을 잃게 되자, 세상의 괴로움이 싫어져 여래의 법에 출가한 비구다. 세상을 버리고 여래의 법으로 출가한 후 고통으로 가득한 백정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여래의 법에 귀의한 후 그가 맞닥뜨린 세계가 그가 떠난 세계보다 더한 지옥이라니. 두려움에 털이 곤두서기까지 한 비구는 그곳을 나가려다 이내 백정에게 붙잡히고 만다. 비구에게 하는 백정의 말이 섬뜩하다.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너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리라." 이제 죽는다는 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이 말처럼 두려운 게 또 있을까.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드는 순간 비구가 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었다. 그러나 비구는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해탈을 구했지만 구한 결과를 얻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렵고 출가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끈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비구. 생명을 버리고 싶을 만큼 비구의 마음은 너무도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동안 정진했지만 비구는 끝내 도를 깨우치지 못한다.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비구는 결국 절구공이로 찢어져 가루가 된 여인의 죽음을 보고 깨달는다. '아아 괴롭구나. 나도 오래지 않아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생사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백정의 물음처럼 죽으면 그만인데 깨닫고 안 깨닫고가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했다. "너는 이제 틀림없이 죽을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하는가?" 또 해탈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비구가 놓아버려야 할 최후의 번뇌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수행자가 깨달음을 생사의 문제로 여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간경>에 나온 얘기처럼 말이다. "내가 만일 기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칼을 빼어든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머리를 벨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로 하여 생각을 기름이 든 발우에 집중하고 세상의 미인과 그 대중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지나갈 것이요, 감히 돌아볼 엄두도 내지 말자." 붓다는 이렇게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고 자기를 돌보는 자야말로 "나의 제자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옥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길을 걸어가라는 붓다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육자매의 인물열전

“사사로운 정 때문에 비극이 된 생, 조趙나라 무령왕”

왕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기』를 통해 배우게 된다. <본기本紀>와 <세가世家>를 통틀어 왕의 맏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탈하게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아들에게 별 탈 없이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라의 절대적 1인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며, 아들을 죽인다. 또 어떤 이는 부자父子관계가 확실치 않음에도 왕이 되기도 하고, 천명(天命)을 받았으며 원래 있던 1인자를 처단하고 새로운 1인자가 되기도 한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유가儒家들이 꿈꾸던 나라, 그러니까 “군자는 왕업을 세우고 후손이 계승하여 이어”간 아름다운 나라는 없다.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하의 패자였던 제한공은 죽은 후에 장례도 제 때 치르지 못했고, 진시황은 죽어도 살아 있는 척 순행을 계속해야 했고, 무령왕은 병사들에게 포위된 채 굶어죽었다. 무령왕. 그는 등장하기 전부터 예사로운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조상 조간자는 “후대의 왕이 오랑캐 복장을 입을 것이며 적 땅에서 두 나라를 합병할” 거라는 꿈을 꿨고, 조간자의 아들 조양자는 상반신만 보이고 하반신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게 대나무 토막을 받는다. 대나무 토막 안에는 “검붉은 피부에 용의 얼굴을 하고… 몸통 위는 우람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진짚나라의 다른 성읍을 정벌하고 북쪽 오랑캐를 없앨 것이라는 예언서가 있었다. 조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조나라를 부흥시킬 ‘굉장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진나라의 분열과 조나라의 탄생을 지켜보아야 한다.

무령왕은 한韓, 위魏와 함께 진짚나라를 삼분한 조나라에서 BC 326에 즉위한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순탄하게 즉위했다. 그러다 즉위 19년 되던 해, 무령왕은 조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호복(오랑캐 옷)을 입고 말 타고 활 쏘면서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선언한다. 한·위와 연합해 진秦나라를 공격했다가 8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접해 있어 조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랑캐를 방어해 조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치령치령한 옷을 입고 수레를 타는 옛 풍속을 바꿔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귀족들은 당연히 “세상에 이런 법도가 어디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이에 무령왕은 귀족과 대신들을 간곡하게 설득한다. 『사기』에서 이렇게 왕이 신하를 설득하는 장면은 아마도 무령왕이 유일할 것이다. 그는 말한다.

“삼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규를 제정했고 상황에 따라 예법을 규정했다. … 옛 것을 위반했다고 비난할 수 없고 옛날 예법을 따랐다고 찬양할 것도 없다.” 무령왕이 형세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극 정성으로 설득한 끝에 귀족들은 왕이 하사한 호복을 입고 조회에 나타났다. 또 왕은 직접 말 타고 활 쏘며 기병과 사수를 모집하여 병사를 키우니, 조나라의 군사력이 강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북쪽 오랑캐들을 밀어내고 중국 북방의 땅이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 무령왕은 안정된 조나라를 아들 하何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주부主父로 물러났다. 이후에도 무령왕은 직접 대부들을 거느리고 진秦나라를 공격했고, 그곳에 잠입하여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조간자와 조양자가 미리 본 조나라의 영화로운 장면은 여기까지였다. 지략과 용맹함을 두루 갖춘 무령왕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큰 아들 장章이었다. 무령왕은 사랑하는 혜후의 아들 하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장을 폐위시킨다. 장은 동생이 즉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를 보좌하던 전불례는 그의 마음에 반역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때 무령왕은 혜후가 죽자 하何에 대한 애정도 식었고, 장이 의기소침하여 동생에게 허리 굽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조나라를 양분해 장을 대代 땅의 왕으로 봉할 생각까지 했으나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장이 전불례와 함께 난을 일으킨다. 왕의 군대와 대치하던 장이 싸움에 져서 무령왕이 머물던 성으로 달아나자 그는 문을 열어준다. 주부(무령왕)의 궁은 포위된다. 병사들은 훗날 주부를 포위했다는 죄를 물을까 두려워 궁의 포위를 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부, 즉 무령왕은 궁 안에서 굶어죽게 된다. 사마천은 무령왕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먹을 것도 없어서 참새 새끼들까지 찾아내어 먹다가 석 달 남짓하여 사구궁에서 굶어죽었다.”

귀족과 신하들을 설득해서 구습을 버릴 정도로 결단력 있었고 어떤 장수보다도 용맹했던 무령왕의 최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다. 총애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何를 왕위에 앉히고도 무령왕은 폐위시킨 큰아들이 불쌍해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를 보살폈던 것이다. 결단력이 있는 인간도 사사로운 정은 어찌지 못했다. / 전미

이달의 선물



택원이네 집,

문경 포도 2상자! 택원이가 군대 가기 전에 보내온 선물, 꿀 맛있었습니다!
택원이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갔다 와서 꼭 공부하러 와야 돼! ^^

효정이네 집,

사과 한 상자! 과수원집 딸내미 효정아, 고맙게 잘 먹었어. 매년 가을,
너의 집 사과 맛이 그리워진다. 빨리 취직해서 놀러와! 보고 싶구나 ^^

백수영쌤,

호두, 토마토, 롤케이크 등등. 저희에게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 안겨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백수영 쌤 ~ ~ 쌤이야말로 저희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

혜경쌤,

쌀, 묶은지, 각종 반찬들. 이렇게 귀한 것들을!
거의 저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네요. ㅠ.ㅠ 감사 또 감사합니다!

미영쌤,

복숭아 1상자. 쌤 덕분에 그 맛있는 복숭아 실컷 먹었어요.
요즘 공부에 탄력 받으신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아요. 쌤, 파이팅! ^^

영수쌤,

커피콩 3kg! & 포도 한 상자! 쌤이 사주신 커피콩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또 그렇게 맛있는 포도는
처음 먹었어요! 사랑해요 ~ ~ ^^

장선영 쌤,

맛있는 커피콩 한 아름! 진한 커피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감사해요 쌤 ~ ~ ^^

인석이,

커피콩! 향긋한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구나. ^^

원일쌤,

폭신폭신했던 의자 20개! 쌤에게 이런 선물을 받으려 불편한 의자로 1년 동안
공부했었다 봅니다. ㅋㅋ 쌤 감사해요. 덕분에 허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

우춘홍쌤,

직접 담그신 된장 & 청국장 & 국화 화분! 쌤의 감동스런 손맛이 느껴지는
된장과 청국장,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국화도 지금 분홍꽃이 활짝 피어서 어찌나
이쁜지 몰라요 ~ ~ 다음에 또 봐요. 연구실에 꼭 공부하러 오셔용 ^^

현옥쌤,

제주도에서 온 썬차! 쌤 덕분에 썬차 향기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

태욱쌤,

국화바구니! 절박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던 날,
이쁜 국화 바구니를 사갖고 오신 태욱쌤! 꽃 선물하시고
바로 결석하시면 양돼요 ~ ~ ^^

아람언니,

밤 한상자! 이렇게 토실토실한 밤은 처음 먹어봤어요 ~ ~
먹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밤 맛. 따봉!! ^^

미혜쌤,

보드카! 오 ~ ~ 이런 고급진 포장의 보드카를 ~ ~ ㅋ 감사해요!
보드카 한 모금 마시고 싶은 날이네요. ㅋㅋ ^^

선민언니,

이쁜 컵들 & 각종 차! 덕분에 카페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 ~!
고마워요 언니 ^^